

문장 성분

개념 1 문장과 문법단위

1. 문장과 문법 단위

(1) 문장

-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 주어와 서술어 등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2) 어절

- 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함.
-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앞의 말에 붙어 한 어절을 이룸.

(3) 구

-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함.
-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지 못함.
 - ① 명사구 : 명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우리 삼천만 겨레는
 - ② 동사구 : 동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꽃이 활짝 피었다.
 - ③ 형용사구 : 형용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 ④ 관형사구 : 관형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겨우 세 사람이
 - ⑤ 부사구 : 부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매우 빨리 뛰어간다.
 - ⑥ 독립어구 : 독립어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예) 빠른 경제 발전,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4) 절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룸. (=구)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음.(≠구)
-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음. (≠문장)

예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문장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구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어절

예

선생님은 현지가 모범생원을 아신다.

↳ ‘현지가 모범생원’은 그 안에 주어 ‘현지가’와 서술어 ‘모범생이-’를 갖고 있으나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이 아니라 절(안긴문장, 하위문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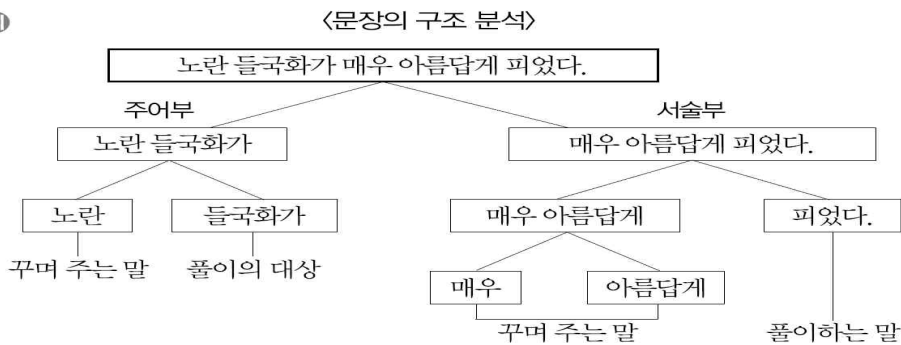
① 주어부 : 주어 또는 주어에 딸린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

- 우리 한글은 대단히 과학적이다.
-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 학교다.

② 서술부 : 서술어 또는 서술어에 딸린 부속 성분 및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

- 그가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마음속의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예





문장 성분

문장 성분

개념 2 서술어와 보어

1.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

- ① 주성분 :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 ② 부속성분 :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성분 (관형어, 부사어)
- ③ 독립성분 :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독립어)

(1) 서술어와 주어

가) 서술어

① 서술어의 종류 :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 - ①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 - ②

└'무엇이 무엇이다'- 체언+서술격 조사(-이다) - ③

새가 날아간다. - ① 꽃이 예쁘다. - ② 그는 학생이다. - ③

② **서술어의 자릿수** :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녀는 <u>예뻐다</u> .	한 자리 서술어 (주어 하나만 필요하므로)
그는 연극을 <u>보았다</u> . 우정은 보석과 <u>같다</u> . 물이 얼음이 <u>되었다</u> .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더 요구하므로)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 <u>뱃돈을 주셨다</u> '의 '주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요구하므로)

나) 주어

☞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세 유형으로 문장을 나누었을 때,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

☞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이/가', '께서'가 붙어 나타나는 데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u>철수가</u> 집에 간다.	<u>넌</u> 어디 가니?
<u>영희도</u> 집에 간다.	<u>할아버지께서</u> 만 그 일을 할 수 있으셔
<u>그 소년</u> 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u>그림 그리기</u> 가 나의 취미이다.

(2) 목적어와 보어

가) 목적어

개념 :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실현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때로 '을/를'이 생략될 수도 있다. 또 '을/를'이 생략되는 대신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난 과일을 좋아해. 난 과일 좋아해. 난 과일도 좋아해.

나) 보어

개념 :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한다.

실현 : 체언에 보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된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문장 성분

출제 Point

.....

문장 성분

개념 3 관형어와 부사어

(3)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가) 관형어

개념 : 체언을 수식

실현 : ①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것이 기본이나,

②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이거나(관형격 조사 '의'가 없이 '체언 + 체언'의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③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결합)으로 나타난다.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소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뽕순이는 학교 가는 중이다

나) 부사어

- 부속 성분이라는 점 - 관형어와 공통적
- 관형어는 체언만을 수식하는 성분이고, 부사어는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 **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연이 매우 높이 날고 있구나.

① 성분 부사어

개념 :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수식

실현 : ①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것이 기본이나,

②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으)로'가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③ 용언의 부사형 '이, 게, -(아)서, -도록'으로 나타난다. 또 보조사가 결합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가을 하늘이 참 높아 보인다. (부사에 의한 실현)

우리들은 오후에 여행에서 돌아왔다.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실현)

무척이나 맑아 보인다.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실현)



문장 성분

✓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

개념 :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 그렇지 않은 부사어를 수의적 부사어라 한다.

실현

- (ㄱ) 수의적 부사어 : 파생 부사나(많이, 일찍이) 순수 부사로(꼭) 이루어짐
- (ㄴ) **필수적 부사어** : 부사격 조사 ‘와, 로’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짐 (‘다르다, 생기다, 같다, 비슷하다, 닳다, 다르다’같은 두 자리서술어나, ‘주다, 삼다, 낳다, 두다’같은 세 자리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한다.)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그 농, 멋지게 생겼네.
 선생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 ‘다르다’, ‘생기다’와 같은 두 자리 서술어나 ‘주다’ 같은 세 자리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한다.

② 문장 부사어

개념 : 문장 전체를 수식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어와 ‘과연, 설마, 모름지기, 확실히, 만일, 설령, 제발, 부디’같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이러한 부사들은 특별한 말들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①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 ② 확실히 오늘 경기는 신나는 한 판이었어.
- ③ 만일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 ④ 모름지기 젊은이는 커다란 포부를 가져야 한다.
- ⑤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 ⑥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하여야 선진국이다.

• 부사어의 종류

성분 부사어 -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것.(앞의 설명 전부)				
부 사 어	문장부사어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			
	양태 부사어 -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주류) - 특별한 말들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①②③④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접속 부사어 - 문장에서 이어주는 기능을 함.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문장 접속 부사 -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 ⑤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단어 접속 부사 - 및 - ⑥ </td> </tr> </table>	접속 부사어 - 문장에서 이어주는 기능을 함.	문장 접속 부사 -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 ⑤	
접속 부사어 - 문장에서 이어주는 기능을 함.	문장 접속 부사 -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 ⑤			
	단어 접속 부사 - 및 - ⑥			

✓ 체언 수식 부사

개념 : ‘바로, 다만, 단지, 특히, 오직, 겨우, 아주’ 등은 부사이지만 관형어처럼 사용되기도 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의 통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관형사로 통용하는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언 수식 부사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다) 독립어

개념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실현 : 일반적으로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야! 드디어 우리들이 기다리던 소풍날이 왔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쫄쫄, 젊은이가 시간을 낭비하면 되는가?

글쎄, 철수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문장 성분

출제 Point



Step 1

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문장 성분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0 • 1

문장을 이루는 요소인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처럼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이 있고,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처럼 다른 성분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 성분이 있다.

• 40 • 2

ㄱ.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ㄴ. 그녀는 학자가 되었다.
 ㄷ. 아야, 이가 너무 아프다.
 ㄹ. 삼촌이 새 자동차를 샀다.
 ㅁ. 그는 설익은 밥을 재빨리 먹었다.

- ① ㄱ과 ㄴ은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ㄷ은 독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③ ㄹ과 ㅁ은 주성분인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④ ㄷ과 ㄹ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동일한 문장이다.
- ⑤ ㅁ은 ㄷ, ㄹ에서 부속 성분으로 사용된 문장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2. EBSi <보기> 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0 •

ㄱ. 아이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ㄴ. 영우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ㄷ.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ㄹ. 농부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다.
 ㅁ.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① ㄱ에 쓰인 문장 성분 중 필수적인 것은 두 개구나.
- ② ㄴ에 쓰인 부사어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구나.
- ③ ㄷ에서 ‘사라진 것은’은 필수 성분이구나.
- ④ ㄹ에서 필수적인 것은 ‘농부는’, ‘황무지를’, ‘바꾸었다’이구나.
- ⑤ ㅁ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이구나.



문장 성분

3.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다른 말을 수식하는 성분 중 하나인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그런데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 ① 형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그는 장난으로 중을 올렸다.
- ② 그는 요즘 병원에 다닌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과 다르다.
- ③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키가 작년보다 컸구나.
- ④ 그는 셋길로 빠졌다.
우리가 결승에서 상대를 꺾었다.
- ⑤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그는 친구들과 하루종일 놀았다.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부사어는 용언을 비롯해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속성분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쓰이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사어들 중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도 있다. 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 ① 영현이는 어머니와 꼭 닮았다.
- ② 철수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생겼다.
- ③ 아버지는 그 아이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 ④ 그는 아래층 사람과 한밤중에 큰 소리로 싸웠다.
- ⑤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시간도 때론 필요하다.

5.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다) 부모님께서 선물을 동생에게 주셨다.
 (라) 그는 나에게 편지를 주었다.

- ① (가)의 ‘얼음이’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② (나)의 ‘얼음으로’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③ (다)의 ‘동생에게’와 (라)의 ‘나에게’는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④ (다), (라)에서 서술어 ‘주다’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라)를 통해 서술어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그는 시장에서 사과를 팔았다.
 ㄴ. 그는 나쁜 학생이 아니다.
 ㄷ. 나는 놀이터에서 놀았다.
 ㄹ. 나는 엄마와 닮았다.

- ① ㄱ의 ‘사과를’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② ㄴ의 ‘학생이’는 ‘아니다’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③ ㄴ의 ‘나쁜’은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다.
 ④ ㄷ의 ‘놀이터에서’와 ㄹ의 ‘엄마와’의 문장성분은 같다.
 ⑤ ㄷ의 ‘놀이터에서’와 달리 ㄹ의 ‘엄마와’는 문장의 필수성분이다.



문장 성분

7. <보기>는 문장 성분을 학습하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 문장 성분 중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분류해 봅시다.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주성분이라 하고 관형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해요.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학생: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는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입니다.

교사: 맞아요.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필수 성분과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수의 성분으로 나뉘어요.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이예요. 부속 성분은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필수 성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래 예문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볼래요?

㉠ 수진이가 민호와 잘 어울린다.
 ㉡ 명수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나는 민정에게 편지를 보냈다.
 ㉤ 우리는 우체국에서 영희를 보았다.

- ① 경희: ㉠에는 주성분이 2개 있습니다.
- ② 희수: ㉡에는 부속 성분이 1개 있습니다.
- ③ 예슬: ㉢에는 필수 성분이 2개 있습니다.
- ④ 준호: ㉣에서 '민정에게'는 부속 성분인 동시에 필수 성분입니다.
- ⑤ 경수: ㉤에서 '우체국에서'는 부속 성분인 동시에 수의 성분입니다.

8. EBSi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돌다 「동사」

[1]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 바퀴가 돌다 / 물레방아가 돌다 / 팽이가 잘도 돈다.

[2] 【…에】 【…에서】 눈물이나 침 따위가 생기다.
 ¶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펄 돌았다. / 입에서 군침이 돌아서 흘렀다.

[3] 【…으로】 방향을 바꾸다.
 ¶ 역으로 가려면 저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계속 가시오.

[4] 【…을】 무엇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 사람들은 탑 주위를 빙빙 돌면서 소원을 빌었다.

- ① ‘돌다[1]’은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돌다[2]’는 주어와 두 개의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돌다[2]’와 ‘돌다[3]’은 모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부사어에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는 서로 다르다.
- ④ ‘돌다[3]’과 ‘돌다[4]’가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다르지만, 서술어의 자릿수는 동일하다.
- ⑤ ‘돌다[4]’에는 ‘달이 지구를 돈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1 • 1

문법적으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 한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누가’와 같은 성분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고, ‘굴리다’는 ‘누가’, ‘무엇을’과 같은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과 같은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41 • 2

돌다
 「동사」
 [1]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 물레방아가 돈다.
 [2] 【…에】 【…에서】 어떤 기운이나 빛이 겹으로 나타난다.
 ¶ 입가에 웃음이 돌다.
 [3] 【…으로】 방향을 바꾸다.
 ¶ 그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4] 【…을】 무엇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 ① ‘돌다 [1], [2], [3], [4]’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를 필요로 한다.
- ② ‘돌다 [1]’은 ‘웃이 예쁘다.’의 ‘예쁘다’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 ③ ‘돌다 [2]’와 ‘돌다 [3]’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와 종류가 같다.
- ④ ‘돌다 [2]’는 ‘얼음이 물이 되다.’의 ‘되다’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으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같다.
- ⑤ ‘돌다 [3]’과 ‘돌다 [4]’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점은 같지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다.



문장 성분

10. 밑줄 친 서술어 가운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웃음이) 터지다’, ‘(날이) 덥다’처럼 주어 이외에 다른 필수적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한 자리 서술어이고,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영희는 학자가) 되었다’처럼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의 자릿수는 고정된 경우도 있지만, ㉠쓰임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①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였다.]
- ② [물레방아가 연신 돈다.
그는 매일 순찰을 돈다.]
- ③ [추위에 온몸이 떨렸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 ④ [내리던 비가 똑 그쳤다.
두 사람은 곧 싸움을 그쳤다.]
- ⑤ [시곗바늘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는 은밀하게 군사를 움직였다.]

11.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탐구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른데, 이때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숫자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탐구 과제>

- ㄱ. 영희가 급히 학교에 간다.
- ㄴ. 그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
- ㄷ. 창수가 소설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 ㄹ. 부인은 용감한 젊은이를 사위로 삼았다.
- ㅁ. 교장 선생님께서 회장에게 임명장을 주셨다.

- ① ㄱ의 ‘간다’는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의 ‘되었다’는 주어가 두 번 사용되었으므로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의 ‘읽었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두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의 ‘삼았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의 ‘주셨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12. EBSi <보기>를 참고하여, ‘보내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내다’의 경우 ㄱ~ㄴ에서와 같이 의미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진다.

- ㄱ. 그는 방학이면 아이를 시골에 보냈다.
- ㄴ. 그는 마지못해 사랑하는 여인을 보냈다.
- ㄷ. 그 노인은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ㄹ.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 ㅁ. 축구 협회는 대표 팀을 국제 대회에 보낼 예정이다.

- ① ㄱ을 보니, ‘보내다’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을 보니, ‘보내다’가 ‘놓아주어 떠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을 보니, ‘보내다’가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을 보니, ‘보내다’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을 보니, ‘보내다’가 ‘운동 경기나 모임 따위에 참가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문장 성분

13. <보기>를 참조하여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그녀는 <u>예쁘다</u> . (주어) (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새가 <u>빨리</u> <u>날아간다</u> . (주어)(부사어) (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그는 <u>연극을</u> <u>보았다</u> . (주어)(목적어) (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물이 <u>얼음이</u> <u>되었다</u> . (주어)(보어) (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철수는 <u>부모님께</u> <u>선물을</u> <u>드렸다</u> . (주어)(필수적 부사어)(목적어)(서술어)	→	세 자리 서술어

- ①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 한 자리 서술어
- ② 그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 두 자리 서술어
- ③ 내 동생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 두 자리 서술어
- ④ 영국의 날씨는 한국과 다르다. → 세 자리 서술어
- ⑤ 그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 세 자리 서술어

14. EBSi <보기> 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관형어와 부사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부속 성분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관형어와 부사어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형어나 부사어가 포함된 문장을 모두 골라 볼까요?

- ㉠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든다.
- ㉡ 나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 ㉢ 그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
- ㉣ 아직 멀쩡한 것을 왜 버리느냐
- ㉤ 그녀는 편지를 친구의 가방에 넣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5. <보기>의 ㉠, ㉡이 모두 들어 있는 문장은?

한샘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성분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문장의 다른 부분과 문법적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또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과 생략할 수 있는 수의 성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고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은 대개 수의 성분이지만, 부속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야 하는 부사어와 ㉡명사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야 하는 관형어는 필수 성분이다.

- ① 어제 언니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았다.
- ②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 ③ 주희는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에서 목도리를 구입하였다.
- ④ 선생님께서 영혜에게 건네주신 것은 파란색 볼펜이었다.
- ⑤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화가 났다.

1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샘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형사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 ㉠
 둘째, 명사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 ㉡
 셋째, '체언 + 관형격 조사'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 ㉢
 넷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 ㉣

- ① ㉠ : 철수는 흰 운동화를 매우 좋아한다.
- ② ㉡ : 나는 친구 시계를 잠깐 동안 빌렸다.
- ③ ㉢ :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운 통일이다.
- ④ ㉣ : 떡을 음식은 따로 보관해 두어라.
- ⑤ ㉣ : 우리는 모두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문장 성분

17. EBSi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가 실현된 방식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서점에는 날마다 새 책이 쏟아져 나온다.
 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ㄷ. 두 소녀는 작은 소리로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ㄹ. 내가 다닌 학교 옆에는 기차길이 있었다.
 ㅁ. 할아버지께서는 소를 세 마리나 키우신다.

- ① ㄱ을 보니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② ㄴ을 보니 명사에 조사 ‘의’가 결합하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용언 어간에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④ ㄹ을 보니 단어 이상의 단위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⑤ ㅁ을 보니 체언이 그 자체로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군.

18.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구 목표: 탐구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 중 하나인 (가)와 (나)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 보자.
 • 탐구 자료:

문장 성분	(가)	(나)
사용 예	·어머니가 <u>새</u> 신발을 사 주셨다. · <u>국가의</u>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내가 실수로 <u>형</u> 책을 잃어버렸다. · <u>착한</u>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오늘은 내가 <u>제일</u>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가 <u>아주</u> 새 신발을 사 주셨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u>항상</u> 질문해라. ·고모는 친구 딸을 <u>며느리</u> 로 삼았다. · <u>아무쪼록</u> 건강하게 지내라.

• 탐구 결과
 :

- ① (가)는 체언을 수식하나 (나)는 다양한 성분을 수식한다.
- ② (가)는 바로 뒤의 성분을 수식하나 (나) 중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있다.
- ③ (가)와 (나)는 부속 성분이나 (나) 중에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④ (가)가 (나)를 수식하는 경우는 없으나, (나)가 (가)를 수식하는 경우는 있다.
- ⑤ (가)와 (나)는 조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Step 2

19. <보기>의 문장들을 대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가) ㉠ 칠판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다.
(나) ㉢ 그들은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
㉣ 형이 종이로 공룡 모형을 만들었다.
(다) ㉤ 우리는 국어와 수학을 공부했다.
㉥ 민호는 수지와 극장에서 만났다.
㉦ 진수는 동생과 공원에서 놀았다. |
|--|

- ① (가)-㉠의 ‘보인다’와 (가)-㉡의 ‘보였다’는 모두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나)-㉢의 ‘녹지로’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나)-㉣의 ‘종이 로’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③ (나)-㉢에서는 의미 변화 없이 목적어와 부사어의 순서를 바꿀 수 없지만 (나)-㉣에서는 그럴 수 있다.
 ④ (다)-㉤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있고 (다)-㉥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만 있다.
 ⑤ (다)-㉥의 ‘수지와’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다)-㉦의 ‘동생과’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문장 성분

20. 형태가 동일한 형태소나 단어가 다르게 쓰인 경우를 모은 자료이다. (가)~(마)의 각 ㄱ,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의 차이점을 관찰한 결과로 타당하지 하지 않은 것은?

- (가) ㄱ. 비가 갠 뒤라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ㄴ. 대답하는 것을 보니 그 아이가 똑똑하게 보인다.
- (나) ㄱ. 그는 아들을 교사로 만들었다.
 ㄴ. 그는 식탁을 통나무로 만들었다.
- (다) ㄱ. 난민들은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집어 먹고 생활하였다.
 ㄴ. 나는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 먹고 크게 놀랐다.
- (라) ㄱ. 나는 음악과 영화를 좋아한다.
 ㄴ. 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구나.
- (마) ㄱ.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기름은 잘 녹지 않는다.
 ㄴ. 비가 내렸지만 관중들은 계속 선수들을 응원했다.

- ① (가) : 동사 ‘보이다’는 ㄱ과 ㄴ에서 모두 바로 앞의 부사어와 주어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가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② (나) : 동사 ‘만들다’는 조사 ‘로’가 결합한 성분과 목적어의 자리 바꿈 가능성과 조사 ‘로’를 ‘를’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ㄱ과 ㄴ의 차이를 보인다.
- ③ (다) : ㄱ과 ㄴ의 동사 ‘먹고’는 주어와의 호응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며, ‘먹고’ 앞의 용언과의 사이에 다른 말의 개입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 ④ (라) : 조사 ‘과’가 결합한 문장 성분은 주어와의 자리바꿈 가능성과 ‘는, 도, 만’ 등 보조사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ㄱ과 ㄴ이 차이를 보인다.
- ⑤ (마) : ㄱ과 ㄴ은 어미 ‘-지만’이 결합한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없음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같지 않다.

[21~22] 다음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연수: ‘아내는 남편과 닮았다.’에 쓰인 서술어 ‘닮았다’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알아?

진영: 그 문장은 필수 성분이 주어와 서술어뿐이니까 한 자리 서술어 아닐까?

연수: 아니야. 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술어, 서술어의 자릿수, 필수적 부사어 등에 대해 먼저 학습해야 해. 자료를 함께 찾아보고 이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서술어는 주어가 되는 말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풀이해 주는 문장 성분이다.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이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이다. 이 둘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서술어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이다. 체언도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면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서술어는 주어를 반드시 요구한다. 그런데 어떤 서술어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만 요구하는 것은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도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요구하는 것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짝을 이루어 문장을 완성하지만 주어만으로는 문장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 이때 체언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부사어가 꼭 필요한데, 이처럼 문장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른다. 형용사가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 그 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서술어에 따라서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일부 타동사는 필수적 부사어를 추가로 요구하여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

<대화 2>

진영: 자료를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서술어와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

연수: 그래.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아내는 남편과 닮았다.’의 ‘닮았다’가 두 자리 서술어이면 ‘부부는 서로 닮았다.’의 ‘닮았다’는 몇 자리 서술어일까?

진영: 음. ‘부부가 서로 닮았다.’의 ‘닮았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겠네.

연수: 그래. 맞혔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구나.



문장 성분

2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어로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올 경우에는 ‘닭았다’가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군.
- ② ‘오늘이 한글날이다.’에서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말이 서술어가 되는군.
- ③ ‘아내는 남편과 닭았다.’에서 ‘닭았다’는 비교의 대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올해 봄꽃은 작년보다 아름답게 피었다.’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말이 필수적 부사어로 사용되는군.
- 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주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22. ㉠이 쓰인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그들은 그물로 멧돼지를 잡았다.
- ② 왕은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③ 그는 나를 인생의 스승처럼 대우했다.
- ④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⑤ 이 지역의 기후는 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 1) ㉠의 '불다'와 ㉡의 '피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며, ㉢의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의 '다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의 '날다'와 ㉥의 '여기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10) ㉠ ㉣ [문장 성분 분석의 적절성 파악] ㉠은 '독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2개(주어, 서술어) 갖고 있다. ㉡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3개(주어, 목적어, 서술어) 갖고 있다. ㉢ ㉣은 '주어, 서술어', ㉤은 '주어, 보어, 서술어'의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은 '아야'라는 독립어(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은 '자동차를', ㉤은 '밥을'이라는 목적어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인 '너무'를, ㉡은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인 '새'를 포함하고 있다. ㉤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 '재빨리', 관형어 '설익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3) ㉠ ㉣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에서 '바꾸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농부가', '황무지를', '옥도로', '바꾸었다'가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 ㉣에서 필수적인 성분은 '눈이'와 '빛난다'이다. ㉡ ㉤에 쓰인 부사어 '어제'는 생략해도 상관없는 수의적 성분이다. ㉢ ㉣에서 '사라진 것은'은 보어로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 ㉥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 4) ㉠ ㉣ [문장 성분의 개념 파악] 제시된 문장에서 '다니다'와 '다르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병원에'와 '예전과'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 '닭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아버지와'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울리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장난으로'는 필수적 부사어로 볼 수 없다. ㉤ '빌리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은행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크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작년보다'는 필수적 부사어로 볼 수 없다. ㉡ '빠지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갯길로'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깎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결승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로 볼 수 없다. ㉤ '먹다'는 '벌레, 균 따위가 과 들어가거나 퍼지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사과에'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놀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친구들과'는 필수적 부사어로 볼 수 없다.
- 5) ㉠ ㉣ [필수적 부사어의 이해] <보기>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사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의 '그는 아래층 사람과 한밤중에 큰소리로 싸웠다.'에서 '한밤중에'는 생략해도 무방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이 문장에서 필수적 부사어는 '사람과'이다. ㉢ ㉣ '어머니와'가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생겼다'를 수식하고 있는 '멋지게'가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 '수양딸로'가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 '자연에'는 '동화되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 14) ㉠ ㉣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나)에서 '얼음으로'가 없으면 '물'이 무엇이 되었는지 제시되지 않아 불안정한 문장이 된다. '얼음으로'는 서술어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 ㉣ (가)의 '얼음이'는 보어로서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 서술어 '주다'는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동생'과 '나'는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동생에게'와 '나에게'는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부사어이다. ㉡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다)에서는 '부모님께서', '선물을', '동생에게'가, (라)에서는 '그는', '나에게', '핀잔을'이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 '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가)~(라)를 통해 서술어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7) ㉠ ㉣ [문장성분 이해의 분석, 적용] ㉠의 '학생이'는 서술어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로, 보어에 해당된다. 서술어 '되다/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는 보격 조사로, 선행 체언을 보어로 만들어 준다. 형태가 주격 조사 '이/가'와 동일하므로 문장 성분 분석 시 주의해야 한다. ㉢ ㉣의 문장에서 동작은 '끝났다'이며 그 대상은 '사과'이다. 이처럼 타동사에 의하여 표시되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 한다. ㉤ 관형어인 '나쁜'은 후행하는 체언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구체적으로 수식해 주고 있다. ㉤ ㉥의 '놀이터에서'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이처럼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부속 성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정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닭았다'도 그중 하나이다. ㉡의 '엄마와'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를 가리켜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 8) ㉠ ㉣ [필수 성분·수의 성분, 주성분·부속 성분 구별] ㉢ ㉣의 서술어 '적합하다'는 '~이/가 ~에/에게 적합하다' 혹은 '~이/가 ~(으)로 적합하다'와 같이 쓰여야 하므로 주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가 필수 성분이다. ㉢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주성분임. ㉠에서 주어 '수진이가'와 서술어 '어울린다'가 주성분이다. ㉡ 관형어, 부사어가 부속 성분



문장 성분

분임. ㉔에서 부사어 ‘깨끗이’가 부속 성분이다. ㉕에서 ‘보냈다’는 부사어 ‘~에게’가 꼭 필요하므로(딱딱이 주어지면 생략 가능) ‘민정이에게’는 필수 부사어이다. ㉖ 일반적인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며 수의 성분임. ㉗에서 본 장소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인 수의적 부사어이다.

9) ㉘ ㉙ [문장 성분 적용] ‘돌다[2]’는 주어와 하나의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다만 문맥에 따라 ‘에’와 결합한 필수적 부사어, 또는 ‘에서’와 결합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할 수 있다. ㉚ ㉛ ‘돌다[1]’은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㉜ ‘돌다[2]’와 ‘돌다[3]’은 모두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돌다[2]’가 요구하는 부사어에는 부사격 조사 ‘에’나 ‘에서’가 사용되고, ‘돌다[3]’이 요구하는 부사어에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사용된다. ㉝ ‘돌다[3]’이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부사어이고, ‘돌다[4]’가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목적어이다. 그러나 ‘돌다[3]’과 ‘돌다[4]’는 모두 두 자리 서술어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동일하다. ㉞ ‘돌다[4]’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달이 지구를 돈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10) ㉟ ㊱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되다’는 주어 ‘얼음’과 보어 ‘물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돌다[2]’ 역시 부사어와 주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되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반면, ‘돌다[2]’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㊲ ㊳ ‘돌다[1]’, [2], [3]은 주어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 ‘돌다[4]’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㊴ ‘예쁘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돌다[1]’ 또한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㊵ ‘돌다[2]’와 ‘돌다[3]’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㊶ ‘돌다[3]’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돌다[4]’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11) ㊷ ㊸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떨리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추위에’나 ‘흥분으로’를 뺀 ‘온몸이 떨렸다.’나 ‘목소리가 떨렸다.’만으로 문장이 성립한다. ㊹ ㊺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다.’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 데 비해,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였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㊻ ‘물레방아가 (연신) 돈다.’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비해, ‘그는(매일) 순찰을 돈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㊼ ‘(내리던) 비가 (뚝) 그쳤다.’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 데 비해, ‘두 사람은 (곧) 싸움을 그쳤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㊽ ‘시곱바늘이 (조금씩) 움직였다.’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비해, ‘그는(은밀하게) 군사를 움직였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12) ㊾ ㊿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되는 성분은 주어가 아닌 보어이다. 따라서 ‘그는’이 주어이고, ‘과학자가’는 보어이다. 그러므로 ㉑의 ‘되었다’는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주어와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㉒ ㉓에서 ‘급히’와 ‘학교에’는 부사어로서 문장에 꼭 필요한 필수적 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다. 따라서 ‘간다’ ‘영회가’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㉔ ㉕에서 ‘재미있게’는 부속성분인 부사어이고, ‘소설책을’은 필수적 성분인 목적어이다. 따라서 ‘읽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㉖에서 ‘젊은이’는 필수적 성분인 목적어이고 이를 꾸며주는 ‘움감한’은 부속 성분이다. 그리고 ‘사위로’는 젊은이를 무엇으로 삼는지에 대한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삼았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㉗에서 ‘임명장을’은 필수적 성분인 목적어이고 ‘회장에게’는 임명장을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주었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3) ㉘ ㉙ [문장 성분의 특성 파악] ‘보내다’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쓰인 사례로 이때의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㉚ ㉛ ‘보내다’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사례로 이때의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㉜ ‘보내다’가 ‘놓아주어 떠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사례로 이때의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㉝ ‘보내다’가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사례로 이때의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㉞ ‘보내다’가 ‘운동 경기나 모임 따위에 참가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사례로 이때의 ‘보내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4) ㉟ ㊱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 이해] ‘다르다’는 주어 외에 비교 대상과 관련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㊲에서 ‘영국의’는 주어인 ‘날씨는’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서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이 없고, ‘한국과’는 ‘다르다’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서 주어(‘날씨는’)와 함께 ‘다르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된다. ㊳ ㊴ ‘피어올랐다’는 주어(‘아지랑이가’)만을 꼭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여기서 ‘모락모락’은 <보기>에 있는 ‘새가 빨리 날아간다’의 ‘빨리’처럼 ㉘ 문장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수의적 부사어이다. 수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㊵ ‘바라보았다’는 주어(‘그 소년’)와 목적어(‘무지개를’)가 꼭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㊶ ‘아니다’는 주어(‘내 동생’)와 보어(‘거짓말쟁이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베풀었다’는 주어(‘그가’), 목적어(‘친절을’) 외에 필수적 부사어(‘나에게’)를 꼭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 ④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 ‘아버지와’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 ‘말정한’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형어이다. ㉢ ‘친구의 가방에’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 ㉠,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16) ㉠ ④ [문장 성분] 이 문장의 ‘선생님께서 영혜에게 건네주신’은 ‘것’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인데, 그 절 속에 서술어 ‘건네주신’이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로 ‘영혜에게’가 나왔다. 또한 ‘것’은 의존 명사로서 관형어의 꾸밈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데 관형사절이 관형어로서 ‘것’을 꾸며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관형사절은 필수 관형어이다. ㉡ ①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만나다’가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이다. 그러나 필수 관형어는 없다. ② 관형사절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은 의존 명사 ‘지’를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고 ‘15’도 의존 명사 ‘년’을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는 없다. ③ 필수 부사어도 없고 필수 관형어도 없다. ⑤ 관형사절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은 의존 명사 ‘데’를 꾸며 주는 필수 관형어이다. 그러나 필수 부사어는 없다.

17) ㉠ ① [문장 성분 분석, 적용] ① ㉠의 ‘흰’은 관형사가 아니라, 용언 ‘희다’의 어간 ‘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에 해당한다. ㉡ ‘시계’를 꾸며 주는 관형어 ‘친구’는 명사이다. ③ ‘소원’을 꾸며 주는 관형어 ‘우리의’는 ‘체언 + 관형격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④ ‘음식’을 꾸며 주는 관형어 ‘먹을’은 용언 ‘먹다’의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결합된 것이다. ⑤ ‘집’을 꾸며 주는 ‘좋은’은 용언 ‘좋다’의 어간 ‘좋-’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된 것이다.

18) ㉠ ⑤ [문장 성분 분석] ㉡의 ‘세’는 수 관형사이다. 따라서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사례에 해당한다.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사례로는 ‘아침 운동’, ‘학교 운동장’의 ‘아침’, ‘학교’를 들 수 있다. ㉢ ① ㄱ의 ‘새’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 ② ㄴ의 ‘남의’는 명사 ‘남’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ㄷ의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ㄹ의 ‘내가 다닌’은 ‘내가 (학교에) 다니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19) ㉠ ⑤ [문장 성분 분석, 적용] ⑤ (가)는 관형어, (나)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국가의’에서처럼 관형격 조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부사어는 ‘머느리로’에서처럼 부사격 조사를 포함하기도 한다. ㉡ 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나, 부사어는 부사어, 관형어, 용언 등을 수식한다. ② 관형어는 바로 뒤의 성분을 수식하나, 부사어는 ‘아무쪼록’에서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③ 부사어 중에는 ‘머느리로’에서처럼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④ ‘아주 새’에서처럼 부사어 ‘아주’가 관형어 ‘새’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20) ㉠ ①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 (가)의 ㉠에서 쓰인 부사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질판의 글씨가 보인다.”와 같이 부사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의 ㉡에서 쓰인 부사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보였다.”와 같이 부사어를 생략하면 서술어가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의 ‘보인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가)-㉡의 ‘보였다’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에서 ‘녹지로’를 생략하면 ‘황무지를 만들었다’가 되는데 원래의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와 의미가 전혀 달라 지므로 ‘녹지로’는 필수 부사어이다. 그러나 (나)의 ㉡에서 ‘종이로’는 생략되어도 다른 문장 성분의 의미 해석을 바꾸지 않으므로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③ (나)의 ㉠에서 목적어와 부사어의 순서를 바꾸면 ‘녹지로 황무지를 만들었다’가 되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지만 (나)의 ㉡에서는 ‘공룡 모형은 종이로 만들었다’로 바꾸어 써도 의미 변화가 없다. ④ (다)의 ㉠은 주어 ‘우리는’, 목적어 ‘국어와 수학’, 서술어 ‘공부했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다)의 ㉡은 주어 ‘민호는’, 부사어 ‘수지와(필수 부사어)’, ‘극장에서(비필수 부사어)’, 서술어 ‘만났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⑤ (다)의 ㉢에서 ‘수지와’는 ‘만나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이지만 (다)의 ㉣에서 ‘동생과’는 ‘놀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21) ㉠ ① [부사어의 이해] 형태가 동일하지만 쓰임이 다른 단어들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항이다. (가)의 경우 ‘보이다’라는 서술어 앞의 부사어가 수의적(임의적)인지, 그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어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ㄱ은 ‘선명하게’라는 부사어가 없어도 ‘보이다’라는 서술어의 의미가 전달되며, 여기에서는 단지 수식의 기능을 하는 수의적 부사로 쓰였다. 그러나 ㄴ의 ‘똑똑하게’라는 부사어를 취하지 못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즉, 필수 부사어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리 옮김에도 제약이 있다. 정리하자면, 수의적 부사어로 쓰인 ㄱ은 부사어와 앞의 주어가 자리바꿈이 가능하지만, ㄴ의 경우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자리바꿈을 할 경우 의미가 달라지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①은 잘못된 진술이다. ㉡ 서술어의 성격에 따른 문장성분의 선택 제약에 대해 묻고 있다. 우선 ‘목적어와 부사어의 자리바꿈 불가능’을 ㄱ과 ㄴ은 두 문장을 검증해보면 ㄱ 문장은 성립 불가능, ㄴ은 성립 가능하다. 다음으로 조사 ‘로’를 ‘를’로 대체 불가능이라는 이 기준으로 보면 ㄱ은 성립 가능, ㄴ은 성립 불가능하다. 두 가지 기준이 각각 개별적으로 문장 ‘ㄱ’과 ‘ㄴ’을 변별할 수 있다. ③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여부와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ㄱ은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다. ㄴ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므로 ‘나는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었다’는 문장은 가능하지만 ‘나는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먹었다.’는 불가능하다. 즉 주술 호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④ 접속 조사 ‘와/과’와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ㄱ은 두 단어를 동일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ㄴ은 공동부사격 조사이다. 이들은 동일한 형태를 결합, 어



문장 성분

순의 자유로움에서 문법적 차이를 보인다(접속 기능의 '와/과'는 어순을 바꿀 수도 없고 보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 하지만 공동부사격 조사는 어순 변경 가능, 보조사 결합 가능). ⑤ 대등적 연결어미 '-지만'에 관한 것으로, 학교문법에서 연결 어미를 통한 두 문장은 서로 대등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내포문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ㄱ의 예문에서 대등적 연결어미 '-지만'이 쓰였으나 ㄴ의 경우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ㄴ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면에서 대등적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문장 전체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으며 선행절은 후행절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제시되어 의존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종속적 이어진 문장(선행절이 후행절에 속할 수 있음)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같은 '독립성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각각의 연결어미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2) **㉠ ④ [서술어 자릿수의 이해]** '올해 봄꽃은 작년보다 아름답게 피었다.'에서 서술어 '피었다'는 문장에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며, '아름답게'는 용언인 '아름답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태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무방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①** '부부는 서로 닮았다.'와 같이 주어가 복수를 나타낼 경우에는 '닮았다'가 주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한글날이다'는 체언인 '한글날'에 서술격 조사'이다'가 결합된 말이다. **③** 주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일 경우에 서술어 '닮았다'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로 '남편과'를 꼭 요구한다. **⑤** '주다'는 '누군가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주어에 해당하는 '누군가가'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무엇을', 그리고 부사어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23) **㉠ ① [필수적 부사어의 이해]** '그들은 그물로 멧돼지를 잡았다.'에서 '잡다'는 '붙들어 손에 넣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때 '그물로'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무방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②** '삼다'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대우하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넣다'는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